

국립공원에 갇힌 전남의 섬들 발전 막히고 주민생활 큰 불편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립공원 관리 정책이 전남의 섬들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 가둬버렸다. 전남의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이자 미래 관광자원의 핵심이지만, 환경부 규제와 자연공원법에 막혀 벤치 하나, 창고 하나 새로 설치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역민이 지난 대선에 맺은 약속조차 환경당국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다. 해마다 “섬에 사람이 사라지면 섬을 보존해봤자 무슨 소용이나. 시대가 바뀌면 공원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 섞인 민원이 쏟아지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꾀적도 않고 있다.

23일 전남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1981년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공원 면적은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 돌산에 이르는 섬과 바다 등 2266.221㎢다. 자연생태계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40년간 섬 주민들은 섬에서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관계당국이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적절히 병립되도록 공원 정책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적 기조한 보존에 골몰하면서 섬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낙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40년간 묶인 데다 ‘육지와와의 단절’이라는 특수성까지 맞물리면서 섬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전남의 섬 인구는 2015년 18만 5097명이던 것이 2019년 17만 202명(유인도 272개)으로 4년 새 8%나 줄었고, 지난 2017년에는 “전남 유인도 279곳 가운데 39곳은 50년 후 무인도가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섬의 인구 변화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도 나온 바 있다. 오는

전남 미래 관광자원의 핵심 해상국립공원 지정 40년간 법과 각종 규제에 막혀 벤치·창고 하나 설치 못해 흑산공항 첫 삽도 못 뜨고 관광객 시설 인허가 안 나 성난 주민들 민원 쏟아져 시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2066년이면 전남의 섬 2165곳 가운데 단 230곳에만 사람이 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섬을 살리려는 노력은 민간 모듬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의 벽은 높지만 하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역에 소형 비행장(흑산공항)은 물론 전기시설·창고 등 소소한 건축물 하나를 올리려 해도 공단과의 ‘협약’을 거쳐야 한다. 공단 협의 방식이 아닌 ‘특정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공원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우회로가 있으나 이는 협의 방식보다 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10년 단위로 이뤄지는데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유관부처 협의라는 난제가 가로막아 통과 사례는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규제의 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역민이 맺은 약속조차 넘어서기 힘들 정도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나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 문 대통령 전남 공약 목록에 오르고 국토교통부마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철새 보호 대책과 국립공원 가치 훼손, 안전성 우려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신안 주민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 분야뿐 아니라 (국토부 소관인) 항공기 안전까지 문제 삼는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규제가 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한다.

여수 금오도 주민들 역시 수년째 ‘공원 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환경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금오도 주민들은 전담과 임야의 7부(70%) 농산까지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제기하고 있다.

정기홍 금오도 이장협의회 회장은 “내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포크레인이 들어와 길을 넓혀야 하는데도 공원으로 묶여 있어 막히고, 해상 펜션이나 관광객 편의 시설을 지으려 해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섬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섬을 온전히 보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민원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짐작 가능하다”면서도 “(저희로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장마 대비 방수포 설치 23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장마를 대비해 토사 등이 쌓인 절개지에 방수포를 덮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장맛비 ... 내일까지 최대 80mm

광주·전남은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4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 내리는 이번 장맛비의 강수량은 10~50mm로 예상

되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0mm가 예상된다.

24일 오후에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광주·전남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 기간 낮 최고기온은 23~26도에 머물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25일 오전경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는 28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기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이번 비가 그친 후 26~27일은 남쪽에서 유입될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원격수업’ 광주 39개 초·중·고 오늘 등교 수업

학사 운영 정상화

광주 33번 확진자와 관련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39개 초·중·고등학교가 24일부터 등교수업으로 전환, 학사 운영이 정상화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유관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24일부터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33번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이동경로가 겹쳐 자가 또는 자율격리됐던 학생 40명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 가운데 광주 33번 확진자와

이동경로가 밀접하게 겹친 고등학교생 3명과 중학생 1명은 음성판정을 받긴 했으나, 자가격리에 들어가 2주 동안 등교가 정지된다.

또 이동경로가 겹친 농동감시자 36명도 자율격리에 들어가 2주 동안 등교가 정지된다. 22~23일 이들 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도 24일부터 정상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등교 전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등·하교 때와 학교생활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점심시간에도 학생·교직원 모두 발열 검사를 실

시해 열이 높거나 호흡기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토록 안내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위해 33번 확진자와 관련된 39개교에 대해 원격수업을 진행했고, 신속히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24일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생수칙 준수,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교육 등 학교 감염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23일 전국 49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국 2만902개 유·초·중·고 가운데 0.2%에서 등교 수업이 불발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곳, 인천(계양) 2곳, 경기(시흥·이천·안산) 5곳, 전북(전주) 1곳 등의 순이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기준 33번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전날 215명보다 34명이 늘어난 249명이다. 이 중 19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53명은 검사 예정이다. A씨 접촉자 중 아직 신원이 확보되지 사람은 PC방 접촉자 28명과 7번 버스 탑승자 28명 등 56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당, 국회 원구성 이변주 결단 ▶4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여전히 사각 ▶6면
KIA 특급 마무리 문경찬 ▶18면
동네책방 나들이 - 연지책방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雪花秀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